

전북

전주 온실가스 배출 '제로화' 도전

市, 탄소 포인트제 전개·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시민 참여 호소

전주시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zero)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시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저탄소 온난화 방지대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 참여를 위해 지역별로 전방위적인 녹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 의식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홍보방법을 적극적으로 개선,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을 실시하면서 홍보대사를 자청한 것이다.

시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실가스 줄이기 프로그램인 '탄소 포인트제'를 선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순 비누제조에만 주로 활용하던 폐식용유를 자동차 연료의 일부로 활용하기 위한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은 환경부의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사업

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비의 국고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대상 폐식용유 수거 및 사회적 약자 일자리창출을 통한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이러한 홍보노력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자가 1000여명 늘고, 20여개 아파트의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 참여는 결실로 이어졌다.

또한 시는 각 사회단체 일원들을 대상으로 '그린리더(31명)'도 양성, ▲가정에너지 진단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대시민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 등을 전개하면서 다중집합체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

하고 있다.

특히 지난 지난해에는 서산동 서문초등학교(교장 유주영)를 찾아 미래주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의 이해와 녹색생활 습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학생들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스스로 실천하며, 학생 스스로 가정에서 홍보대사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수업도 진행했다.

이처럼 시 복지환경국장은 "각계각층을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2011년부터는 인원과 장비를 확충, 시민이 직접 기후변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특제 2면

주먹밥 먹으며 병영체험 해볼까

14일~17일 고창 모양성제

'제37회 고창 모양성제'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창읍성 및 시가지 일원에서 열린다.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이번 모양성 축제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호국병영 체험축제는 물론 조선시대 병영체험 등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통 병장기 및 현대군장 전시와 전투사상 전시, 주먹밥 체험 등은 전후 세대들의 산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첫날인 14일 원남 교민식과 거리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봉화대 점화 및 환상의 불꽃 쇼와 개막축하 공연을 연다.

15일에는 전국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답성놀이(사진)를 비롯해 출항인사들과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



여 고택발전을 다지는 '애환의 밤'이 열린다. 고창군민의 날인 16일에는 '군민의 장' 수상자가 가마를 타고 원남부민 행차를 재연하며 관광객들을 향해 답례하는 의식을 갖는다.

축제 마지막날인 17일에는 고창농악의 명물인 고택농악 보존회 주관으로 농악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전북취재본부=조종욱기자 jong@

흥부네 박잔치 복 받으러 가요

16일~17일 남원 흥부제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전인 '흥부전'을 바탕으로 한 '흥부제'가 오는 16~17일 이틀 동안 '우애·나눔·보은·행운'을 주제로 남원시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흥부제는 기념행사와 경연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연계행사 등 총 5개 분야 12개 종목에 걸쳐 펼쳐진다. 올해 축제는 대중가요를 비롯한 의식행사의 비중을 낮추고 국악과 농악, 흥부체험 행사를 대폭 늘려 축제장 곳곳에서 흥부정신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첫날인 16일에는 흥부전의 배경지인 인월면과 아영면에서 행사를 알리는 고유제와 풍년기원 농악놀이 등 흥부마을 터를 울린다.



이어 16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개막행사가 진행된다. 개막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주는 '남원 시민의 장' 수여에 이어 국립 민속국악원 단원 50여 명이 출연해 신관놀이 '흥부가'의 축하공연을 갖는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익산 도심 교통난 숨통

국도 27호선 우회로 건설키로

익산시의 최대 주민 숙원사업인 국도 27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이 국토해양부 도로부본 중장기 계획 3차 5개년안에 포함돼 균형있는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사업이 완공되면 호남고속도로 왕궁분기점에서 군산방향으로 가는 교통량이 분산돼 영동중, 원광대 앞은 물론 시내권 전반에 대한 교통체증률이 50% 이상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해양부가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익산분기점에서 서수로 이어지는 익산북부 국도대체 우회도로(서수~평장) 건설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심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총 연장 16.6km 구간에 너비 25m인 양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호남고속도로 익산 분기점에서 연결돼 서수까지 이어지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구절초, 그 향기로온 유혹

관광객들이 정음시 산내면 매죽리 옥정호 인근에 조성된 구절초 테마공원을 문화관광부 지정 가볼만한 축제장 20선에 뽑힌 바 있다.

과일 사육과 인공사료 공급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과 전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전북뿐 아니라 전국의 토종벌 사육 농가가 감염 차단을 위해 발목을 소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육 농가들은 이를 재해로 인정해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북도 축산당국은 "토종벌은 농업재해법에 명시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면서 "정부에 특별재해 인정과 내년 종자 벌의 구매자금, 벌통 등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꿀벌농가 괴질 피해 110억원

도내 85% 집단폐사...관련규정 없어 보상 어려워

전북지역 토종벌의 85%가 집단폐사해 110억원이 넘는 피해(농가 170여명 주상)가 발생했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토종벌의 바이러스성 질병인 '남충봉아부패병'의 확산으로 현재까지 전체 9만6537군의 85%인 8만2000여군에서 토종벌이 폐사하거나 감염돼 115여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남충봉아부패병'은 마땅한 치료방법이 없고 전파 속도가 빨라 지난 5월 남원의 지리산 일대와 순창 등지에서 발생한 뒤 2개월여 만에 장수와 임실, 완주 등 도내 전역으로 확산됐다.

사실상 꿀 수확이 불가능한 '남충봉아부패병'은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도내에서는 올해가 처음이다.

과일 사육과 인공사료 공급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 뚜렷한 치료방법이 없고 발병과 전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전북뿐 아니라 전국의 토종벌 사육 농가가 감염 차단을 위해 발목을 소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육 농가들은 이를 재해로 인정해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북도 축산당국은 "토종벌은 농업재해법에 명시되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면서 "정부에 특별재해 인정과 내년 종자 벌의 구매자금, 벌통 등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철수기자 knews@

김생기 정음시장 취임 100일

"7개 분야 123개 세부실천과제 확정"

"민선 5기 비전인 '시민이 행복, 자랑스러운 정음'을 만들기 위해 민생현장을 뛰면서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시장이 되겠다"는 취임사를 밝힌 김생기 시장은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짧은 기간, 민선 5기 비전 실현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며 "앞으로 모든



동력을 확보해 추진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음시는 민선 5기 밑그림으로 공약사업을 포함한 민선 5기 비전과 핵심과제를 발굴해 공무원 내부토론, 전문가 토론회, 시의회 설명회를 거쳐 7개 분야·88개 과제·123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김 시장은 민선 5기 중점 시책으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s@

GG경매 컨설팅(주) advertisement containing real estate listings for various areas like Gwangju, Jeonju, and Jeonju, including apartment and commercial propertie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현대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토지 급 매매' and '광산구 토지 매매' sections with detailed property information and contact details.

상무랜드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highlighting '건물(임대용, 투자용)' and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listings with prices and features.

금산공인중개사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featuring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and '대지면적' listings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대인동살일부동산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ervices, emphasizing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 and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